



광주노동청, 중대재해 예방 릴레이 캠페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정열)은 지난 21일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광주 위파크 마복근린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안전문화실천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이다. 건설현장 자율 예방체계 정착을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24개 현장이 참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현장 무재해를 기원하는 '무재해기'를 전달하고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한 모범 근로자를 포상했다. 한파 대비 방한 장구 및 보호구 지급, 난방장치 설치 장소를 제공해 재해 발생을 확인하고 거꾸집 동바리 설치 안전 규정 등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양정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내년에도 노사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전남개발공사, 재난취약계층 생활환경 지원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중모)가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박스 전달 및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사진)

전남개발공사 ESG 경영혁신 실천 일환으로 재난취약계층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마련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목포 유달동(시화골목)은 경사가 많고 겨울철 재난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준비한 재난안전박스는 방재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소화 멀티탭, 소형 소화기, 도시형 아이젠 등 600만원 상당의 안전용품으로 구성됐다. 유달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재난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했다. 개발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으쓱(ESG)봉사단'은 시화골목을 돌며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발화물질과 쓰레기를 제거하는 환경정화활동도 진행했다. **박간재 기자**



(재)중흥장학회, 고교생 192명에 장학금

광주·전남 향토기업 중흥그룹의 장학재단 (재)중흥장학회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역 고등학생 192명에게 총 1억9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중흥장학회는 지난 22일 중흥건설 대회의실에서 광주시교육청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해당 학생들에게 '제12기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날씨 관계로 일부 학교 대표만 참석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지난해에는 131명에게 1억3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중흥그룹은 매년 12월 말이면 (재)중흥장학회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12년째 지급하고 있다. 또 우수 협력업체에 대한 포상 시상과 업체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최권범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희귀질환 완치잔치'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최근 '제23회 소아암·백혈병 희귀질환 완치잔치'가 열렸다. 축하하는 환호와 박수갈채가 이어지며 완치의 기쁨을 얻은 31명의 환아와 함께한 가족, 그리고 의료진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사진)

25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와 사회사업팀, 전남권역 희귀질환 거점센터가 주관해 열린 이번 완치잔치에서 정용연 병원장과 임직원, 소아청소년과 국훈·백희조·김보람 교수 등은 환아들에게 완치 메달을 걸어주고 축하케이크를 자르며 기쁨을 함께 했다. 또 화순교육지원청 조영래 교육장과 김정주(사)기부천사·해피트리 김정주 대표 등 치료비를 후원해주는 단체 관계자도 참석해 후원금과 축하 인사를 전했다.

국훈 교수는 "건강한 모습으로 완치판정을 받은 여러분은,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아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 동부경찰, 청소년비행 대책협의회

광주 동부경찰 여성청소년과가 23년 하반기 '청소년비행 대책협의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지난 21일 동부경찰서에서 열린 협의회는 동구청·동부교육지원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동구가족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23년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보호' 관련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 2명의 통합 사례 회의를 통해 상담·의료·생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의 원인·현황을 분석하고 위기 청소년 선도·지원을 위한 각 유관기관·단체별 역할 분담과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협업을 통해 청소년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기 청소년이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받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광산소방서, 요양병원 화재 안전 컨설팅

광주 광산소방서는 지난 21일 대형화재 취약지인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을 찾아 화재안전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컨설팅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재난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요양병원에 방문해 화재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시설 관계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대상차 관계자 화재 안전관리 현황 청취 △화재 취약요인 안전지도 △거동불편환자 피난 계획 및 대책 논의 등이다.

김영일 광산소방서장은 "요양병원 특성상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소방시설 점검과 훈련을 통해 인명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현 기자**

인사

장성군 ◇4급 서기관 승진 △보건의료장 박보서 ◇4급 서기관 전보 △장성읍장 문경배

◇5급 사무관 승진 △진원면장 직무대리 최정순 △장성군의회 전출 변혜영 △건설산업국 산립편백과장 직무대리 장근수 △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 임동섭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신미영 ◇5급 사무관 전보 △기획실장 안광수 △총무과장 조지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보건정책과장 허영태 △동화면장 신정숙 △환경면장 강대익 △북일면장 이현재 △환경과장 김영미

광주시교육청 ◇3급 전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정운용 △금호형생교육관장 선계룡 ◇4급 승진 △감사관 청림총괄담당 안형관 △행정국 조직복지과 교육협력관 박래진 ◇4급 전보 △공보담당관 한찬석 △정책국 노동정책과장 한현숙 △정책국 안전총괄과장 허승 △행정국 총무과장 임창호 △행

정국 조직복지과장 김영대 △행정국 행정예산과장 양관철 △행정국 재정과장 김수정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양규현 △광주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김정연 △광주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양도 △광주학생교육원 총무부장 김종오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 박준수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김미경 ◇5급 승진 △정책국 노동정책과 노사협력담당 우유길 △교육국 중등특수교육과 고시담당 김형렬 △행정국 재정과 재산관리담당 김두진 △학교법인 흥복학원 파견 이용안 △금호형생교육관 운영과장 문균식 △광주공업고등학교 행정실장 안기채 △전남공업고등학교 행정실장 장상석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행정실장 최성동 △문정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홍상현 △장덕고등학교 행정실장 조용호 △성덕고등학교 행정실장 유경아 △광주선명학교 행정실장 김경란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정보통신기반과장 임영숙

'노랑' 100만 돌파... 흥행 시동 걸었다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중 마지막 영화 '노랑:죽음의 바다' (이하 '노랑')가 성탄절을 앞둔 주말 박스오피스를 장악해 흥행에 시동을 걸었다.

2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노랑'은 지난 22-24일 전국 2129개 스크린에서 126만5004명을 끌어모았다. 지난 20일 개봉한 이래 누적 관객수는 168만1262명에 달한다.

'노랑'은 임진왜란 발발 후 7년, 조선에서 퇴각하려는 왜군을 완벽하게 섬멸하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전투를 그렸으며 '명랑' (2014), '한산:용의 출현' (2022)으로 이어지는 김 감독의 이순신 프로젝트 마지막 영화다. 배우 김윤석이 이순신 장군을 연기했고, 정재영·백윤식·허준호·이무생·이규형 등이 출연했다.

'범죄도시3'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1000만 영화 반열에 오른 '서울의 봄'

은 같은 기간 전국 1531개 스크린에서 88만5712명을 끌어모으며 흥행세를 이어갔다. 누적 관객수는 1030만8165명이다.

올해 한국 영화가 부진했는데 '노랑'·'서울의 봄'이 사흘 동안 합쳐 200만명을 끌어모으며 연말 극장가를 달고 있다.

DC 슈퍼히어로 영화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은 같은 기간 26만5535명을 모으며 주말 박스오피스 3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37만363명이다.

애니메이션 '신차원! 짱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날아라 수제김밥-'은 이 기간 20만9365명을 불러왔으며 박스오피스 4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수는 21만6966명이다. 애니메이션 '트롤' (2017) 후속편인 '트롤: 밴드 투게더'는 12만696명으로 박스오피스 5위에 걸렸다. 누적 관객수는 14만9987명이다. **이주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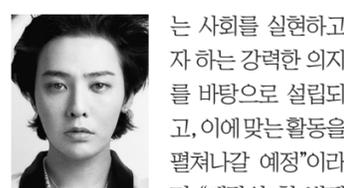
지드래곤, 마약퇴치 '평화정의재단' 설립 공표

한류그룹 '빅뱅' 리더 겸 솔로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사진)이 마약퇴치 등을 위한 재단을 설립을 공표한 가운데 첫 출연금 3억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25일 지드래곤 소속사이자 인공지능(AI) 메타버스 기업인 갤럭시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드래곤이 설립하는 재단 이름은 저스티스(Justice·정의)와 피스(Peace·평화)를 합친 '저스피스 파운데이션' (JUSPEACE Foundation·평화정의재단)으로 정해졌다. 재단의 슬로건은 '평화를 수호하자 & 사랑의 정의 / 정의의 사랑'이다. 지난 21일 지드래곤이 갤럭시코퍼레이션을 통해 전한 손편지의 마지막 인사이기도 했다.

첫 출연금은 3억 원으로, 지드래곤이 단독 기부한다. 지드래곤은 앞서 첫 기부는 빅뱅 팬덤 'VIP'의 이름과 캠페인 활동명인 '가디언스 오브 데이지 (Guardians of Daisy)'으로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의 최용호 대표는 "재단은 권지용의 음악을 통해 편견 없



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설립되고, 이에 맞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마약퇴치 및 중독 청소년 치료를 위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드래곤은 손편지에서 "한 해 평균 마약사범이 2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무섭게 증가했지만, 이들 중 치료 기관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500명도 되지 않는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언급했다. 지드래곤은 마약퇴치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마약퇴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지드래곤은 재단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의료보건, 공공정책과 행정, 복지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선별하고 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공익활동의 방향을 정한다. 뉴시스